온몸으로 실행해야 계향 피어나

혜능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9>

오계상경-3

계상은 계 지키는 다양한 모습
계법대로 생활할 때 '계율청정'

우바새는 범어이다. 세속에 있으면서 삼보를 받들어 섬기는 남자를 말한다. 우바이는 세속에 있으면서 불법을 신앙하는 여자를 말한다. 불교도는 이렇게 출가 2부중(비구 · 비구니)과 재가 2부중(우바새 · 우바이)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4부대중이라 한다. 출가중은 철저한 수행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계승하는 법의 상속자가 되어야 하고, 재가중은 출가중이 수행에 전념하도록 공양과 외호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가중은 불교 교단의 뿌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학적인 이론에 그치거나 기복적인 신행에 치우치기보다 계율에 기초한 신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계상(戒相)은 계를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는 모양의 여러 가지 차별을 말한다. 5계, 10계, 250계를 받아서 지킬 때 그 낱낱의 계에는 제각기 차별이 있다. 지범(持犯)의 가볍고 무거움 등 각각의 계에 따라 저마다 다른 모양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간절하게 계율을 잘 준수하는 모양을 가리켜 '계상'이라 한다.

중국 율학의 학풍을 확립한 남산율종의 시조인 도선 율사가 지은 『행사초』에서는 계를 네 가지로 나누어 해석하고 있는데, 곧 계법, 계체, 계행, 계상이다. 이 것을 율학에서는 '계의 사별(四別)' 또는 '계의 사과(四科)'라 한다.

원조 율사가 『행사초』를 더 알기 쉽도록 풀어놓은 것이 『사분율행사초자지기』이다. 권상1하에 "성인이 교(敎)를 제정하는 것을 계법이라 하고, 계법을 받아 업을 이루는 것을 계체라 하며, 체에 따라 행위를 일으키는 것을 계행이라 하고, 계행을 행함에 차별의 양상이 있는 것을 계상이라 한다." 하였고 권17에는 "만약 계상을 잘 판별하지 못하면 계법, 계체, 계행의 세 가지 가운데 하나도 깨달을 수 없다. 왜냐하면 법에는 다른 법이 없고 곧 상(相)이 법이며, 체에 다른 체가 없고 모든 상이 체이고, 행에 다른 행이 없고 상을 밟아가는 것이 행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계를 배우는 이는 계상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문에서 깊이 연구하고 살펴야 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계의 네 가지 분류를 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

계법은 계의 조문, 공능, 작용, 공덕 등을 말한 율법을 가리킨다. 5계, 10계, 구족계 등은 모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법이다.

계체는 구족계를 받을 경우 세 번의 갈마를 할 때(오계의 경우는 삼귀의를 할 때) 법에 의거해 받들어 지니려고 하는 의지를 말한다.

계행은 계를 받고 난 뒤 계법의 조목에 따라 이를 실천 수행하는 행위의 표현을 말한다. 흔히 불자가 계를 받아서 그 계법대로 올바르게 잘 지키면 '이 사람은 계행이 청정하다'고 말하는데, 이런 경우의 계행은 계를 받아 구체적으로 현실 생활에서 실천하고 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관을 하며 마음 속에 계법을 받아들이면 곧 계체를 얻게 된다. 계를 받은 후 일단 한 번 생겨난 계체는 조작할 수 없고, 항상 상속하므로 '무작(無作)'이라 하고, 그 모양이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무표(無表)'라고도 한다. 무작 또는 무표라고도 하는 이 계체는 잘못된 일을 막고 악행을 그치게 하는 공능을 가진 계의 본성이고, 또한 계법에 대하여 신념을 가지고 계법을 받아들여 지니려고 하는 의지를 말한다.

계행은 계를 받고 난 뒤 계법의 조목에 따라 이를 실천 수행하는 행위의 표현을 말한다. 흔히 불자가 계를 받아서 그 계법대로 올바르게 잘 지키면 '이 사람은 계행이 청정하다'고 말하는데, 이런 경우의 계행은 계를 받아 구체적으로 현실 생활에서 실천하고 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을 읽어서 지혜가 열리면 '경안(經眼)'이 밝아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율장을 많이 읽고 보았다 해서 '계안(戒眼)이 열렸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계법에 맞는 생활을 할 때 '계행이 청정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계율은 가슴으로 이해하고 온몸으로 실행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계의 덕이 있게 되고 계의 향기가 피어나게 되는 것이다.

계상은 5계, 10계 등의 계법의 조규에 따라 실제로 행할 때에 그 행하는 모양의 여러 가지 차별을 말한다. 즉 어떠한 종류의 범계를 하면 그 범계를 한 모양에 따라 죄가 가볍고 무거운 것과, 참회할 수 있는 것과 참회할 수 없는 것 등의 정황이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모양을 계상이라 한다. 이 계상을 명료하게 알고 있어야 계를 잘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목우자가 『계초심학인문』에서 "오계나 십계 등을 받아서 지범개차를 잘 알아야 한다" 한 것도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지금까지 『불설우바새오계상경』 제목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 경은 이렇게 재가불자가 오계를 받아서 지킬 때 각각의 계를 지킴에 있어서 가볍고 무거운 것과 참회가 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등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이다.

〈해인총림 율원장〉

"거친 마음 맑게 밝혀야 자성깨쳐 부처 이룬다"

법회중계

동화사

〈2000년 3월 1일〉

성덕스님
〈동화사 주지〉

'상구보리 하화중생' 서원세워 부지런히 복과 지혜 닦도록

백년동안 쌓은 재물은 하루아침에 허물어지지만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동안 보배가 됩니다. 부처와 조사스님들은 '명심견성성불(明心見性成佛)'이라고 했습니다. 거친 마음을 다스려 맑게 밝히면 자성을 볼 수 있고 자성을 확연히 깨치면 곧 부처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마음 닦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히 부처가 다 된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막상 경계에 처하면 살림살이가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자기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이 옳고 그른지는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잘못 해석해서 말하면 사도요, 마도가 되니 신앙생활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훌륭한 선지식을 찾아 법을 묻고 되묻고 점검 받으면서 나아가야 엇길로 빠지지 않는 법입니다.

자장율사께서는 "하루동안 계를 지키며 살다 죽을지언정 계를 파하면서 백년을 살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이란 '살생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등 금지의 뜻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맑고 밝은 마음으로 진리를 실천하라'는 경책입니다. 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늘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하루 3번 참회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삭발한 스님들만 수행자가 아니라 계를 지키고 진리를 참구해 나가는 자는 모두 수행자입니다.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집착을 버려야합니다. 사람이 재물이나 사랑에 눈이 멀면 부모형제도 보이지 않게 되니 수행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저지른 행위의 결과는 내가 받게된다는 인과응보의 도리를 명심하고 선업도 악업도 놓아야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무조건 사람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좋다고 해서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까닭입니다.

또한 수행자는 모름지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목표가 없는 수행은 나침반이 없는 항해와 같아서 얼마가지 않아 좌초하고 맙니다. 방일하거나 게을러서는 안됩니다.

히말라야 설산에 '한고조'라는 새가 살고 있었는데 이 새는 너무 게을러서 낮에는 실컷 놀기만 하다가 밤만 되면 "아이고 추워라. 추워. 날만 새면 꼭 집을 지어야지"하고 다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새면 날씨가 따뜻하니 노래부르고 놀다가 또다시 추운 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곤경에 처하면 부처님을 찾다가도 형편이 좋아지면 술집이나 도박장을 기웃거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산에서 만난 도적은 쫓아내기 쉬우나 자기 자신의 마음도적은 쫓아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마음도적을 항복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수행자가 복만 쌓고 지혜를 닦지 아니하면 마치 코끼리가 비단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아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옛날 인도에 지혜와 복을 닦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복을 닦고 형은 지혜를 닦았는데 형은 동생이 불쌍하고 동생은 형이 불쌍해서 서로 복과 덕을 닦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먼저 죽었는데 하루는 형이 길을 가다가 코끼리가 비단옷을 입고 있어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을까"하고 혜안으로 보니 바로 자기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법문을 해주니 동생이 뉘우치고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 머리를 담벼락에 부딪혀 죽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중생구제를 제대로 하려면 복덕(福德)과 지혜를 동시에 닦아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서원을 세운 다음에는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리=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학문의 틀 넘어 문화로 발전"

세계의 불교학 <9> 영국 ④ <끝>

합리적 불교사상 '생활의 나침반'

런던불교학회(Budd hist Society)를 창립했던 험프레이즈(Humphreys. Chrismas · 1901~1983)는 "불교는 좁은 의미로 사용하더라도 철학이자 종교일뿐 아니라 생활의 한 양식이고 존재 방식이다. 그것은 문화 체계이고 가치 체계이며, 정신적 삶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과거 영국불교학계의 연구 풍토가 동양주의(Orientalism)로만 한정하고 타자로 대상화한 것과는 뚜렷 대조적이다. 20세기 이후 영국의 불교학자들은 불교를 '삶의 방식(A Way of Living)'으로 생각하며, 교리 체계에 의한 도그마의 종교로 생각하지 않았던 세대였다. 그들은 불교의 내면에 응집되어 있는 개인적이지만 이성적이고 또 합리적인 법향(法香)을 즐기며 친화감을 키웠다.

불교학을 연구할 수 있는 대학의 학제(學制) 역시 불교학 연구 풍토의 변화를 가속시켰다. 영국의 불교학 연구는 2차 대전 이후 종교 연구(Religious Studies)와 지역 연구(Area Studies) 등으로 확대되었고, 불교학은 두 연구 틀 속에서 다양한 주제를 과제로 삼을 수 있었다. 특히 아시아권 언어 연구의 확장에 따른 불교의 언어학 · 문헌학적 연구는 심화되었다. 또 종교 관련 연구는 세미나리(Seminary)에 귀속된 형태로 시작되었다가 대학의 학과로 확대돼 '종교학과'의 신설로 이어졌으며, 불교학은 종교학의 한 분야로 정착했다. 그리고 불교 관련 과목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수들이 임명되었는데, 그들은 아시아 전역에 흩어진 다양한 종교들을 포괄적으로 강의할 수 있어야 했다. 예를 들어 지역 연구의 한 분야였던 동양언어학과(Oriental Language)는 종교학 관련 연구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비교 · 종교학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은 영국의 불교학계는 산스크리트 · 빨리 · 티벳 · 중국 · 일본 · 한국어 등으로 기록된 경전들을 연구 텍스트로 선택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한편 제임스, 베버, 엘리아데 등 신화 · 철학 · 종교학 등과도 비교 ·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 부단한 자기 성찰을 거치면서 제국주의적 학풍을 벗고 종교적이고 이지적이며 또 인간적인 가치를 서로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불교학풍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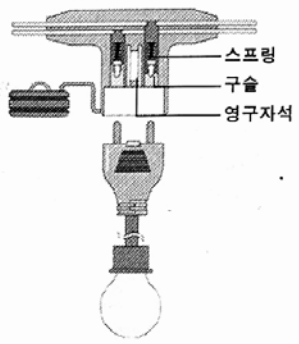
인터넷 상에서 런던불교학회를 방문하면 90년대 이후 불교학계의 반향을 일으킨 연구 논문과 책들의 목록을 연람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주디스(Judith, Law)의 '영국에서의 베트남불교 공통체의 수행과 신심'(1991)=영국의 리드스대학에서 추진했던 '공동체 종교 조사 계획'에 일환으로 발표된 논문. 여기는 영국내 22,000여명의 베트남 난민의 종교적 심성을 포괄적으로 조사 · 연구하고 있다. ▲코신스(Cousins, L. S.)의 '영국의 상좌부 불교(Theravaada Buddhism in England)'(1990)=담마카야 재단이 1990년 태국의 방콕에서 '불교, 2000년을 향하여'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이 논문에서 코신스는 19세기 이후 영국 지성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상좌부 불교사 정리하는 한편 그 힘의 근원을 추적하고 있다. ▲멜러(Mellor, Philip A.)의 '프로테스탄트 불교-영국불교에 대한 문화적 해석(Protestant Buddhism-Cultural Translation of Bu ddhism in England)'(1991)=영국의 포리스트 상가(Forest Sangha)가 '영국인의 불교 이해'를 주제로 조사 · 분석한 연구 논문. 불교의 문화사적 이해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스콧(Scott, David)의 '현대 영국불교-양상과 방향(Modern British Buddhism: Patterns and Directions)'(1995)=런던대에 개설되어 있는 동양학 관련 연구소인 SOAS에서 마련한 '불교 포럼'에서 발표된 논문. 티벳불교의 까마파, 영국의 승단, 일본불교의 창가학회 등 영국불교계를 이끌고 있는 종파와 단체를 조사 · 연구했다. ▲알몬드(Almond, Philip C.)의 〈영국에서 불교 찾기(The British Discovery of Buddhism)〉(캠브리지 · 1988)=19세기 빅토리아왕조 시대에 활동했던 철학자들이 불교를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 '부다필드 축제(Buddhafield Festival)'를 준비하는 영국인 불자들. 이 축제는 영국의 불교단체 FWBO에서 매년 주관하고 있다.

연등 배선의 혁신

연등배선의 혁신
새로운 방식(자석식)의 제품으로
연등배선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 일체형도 생산합니다.

안전하게 제작에서 「시공」 까지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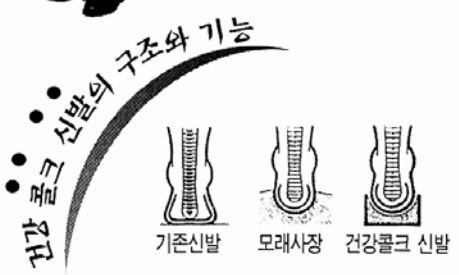
규 격
· 법당용 - 30cm, 40cm, 50cm
· 외부용 - 1M, 1.5M, 2M, 3M
※ 주문시 간격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용도 · 사찰 연등용

특 징
1. 불자 기업으로서 卍 표시를 하였습니다.
2. 자석의 특성을 살려 배선의 설치 및 수거가 용이 합니다.
3. 영구자석을 사용하였으므로 자력이 강합니다.(자력2.5Kg)
4. 접촉불량이 없으며 감전의 위험이 없습니다.
5. 한국 · 일본 동시 특허 출원
6. 기존의 제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자석식)의 제품으로 사찰용도 전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 시공시 조광기를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생각하는 기업
S2신성
서울시 도봉구 창1동 667-117호
TEL: 02)993-8903~4 / H.P: 011)367-3786
FAX: 02)993-8905
공장 0341)988-1688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1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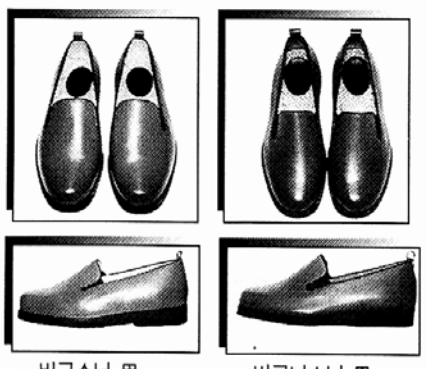
수행자를 위한 건강 코르크 수제화신발 "卍行"
스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구조: 反射原理(반사원리)로 만들어 졌습니다.
사람의 발바닥과 발에는 63곳의 반사점(경혈)이 (피츠제너럴 드:반사이론)(약식건강법) 있습니다. 이 반사구에 적당한 마찰이 가하여 질때 집중된 말초신경의 에너지 순환작용을 활성화 시켜 질병은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가장 탁월한 예방의학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신발 만행은 발의 반사구를 골고루 밀착 자극하여 주는 인체 공학의 설계와 천연 코르크의 뛰어난 특성과 최고급 피혁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신고 걷는 사람의 체중과 적합한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기능: 循環原理(순환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체에는 혈관의 종횡 무진으로 뻗어 있고 이 혈관을 크게 나누면 동맥 · 정맥 · 모세혈관의 3가지로 구분합니다. 동맥은 영양과 산소를 나르고 정맥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나르고 모세혈관은 동맥이 운반해 온 것을 신체 구석구석의 세포로 건너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정맥으로 나릅니다. 어느 기관의 부위가 불건강하면 그 순환기능이 반드시 불량 현상을 일으켜 말초신경 및 지구인력의 작용에 의하여 노폐물(요산화합물)이 무릎 위 10cm까지 고이게 됩니다. 그때 발의 반사구를 적절히 비벼주거나 자극을 가하면 신장등의 배설기관에 의하여 쌓여있던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어 집니다.

스님전용신발 "만행"
길없는 길위에 서 있는 수행자들만을 위한



· 비구스님 用
· 회색, 흑색
· 비구니스님 用
· 회색, 흑색

건강신발 卍行의 특 징
1. 구두안쪽의 특수 안창은 천연코르크로 만들어졌습니다.
2. 건강신발은 바닥안창이 발바닥 굴곡 그대로 설계하였습니다.
3. 운동부족으로 인한 평발예방, 관절과 디스크 보호,
4. 신장기능개선

구입문의 0342)742-0296. 742-0297
卍行대표 박동진 합장